

동양철학의 눈으로 본 현대의 제문제 실천적 방향에 대한 모색은 미흡해

우리들의 동양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동녘/A5신/276면/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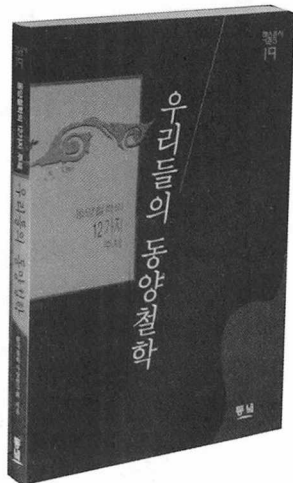
동양철학 연구자들만큼 '현대'에 관심을 많이 가진 이들도 없을 것이다. 현대가 참으로 동양철학을 위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동양철학이 현대에 빚진 그 무엇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지는 잘 모를 일이다. 지난 2월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펴낸 《우리들의 동양철학》도 마찬가지로 '현대'를 화두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종래의 논의들과 몇가지 중요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 책은 종래 이 분야의 논의를 정리, 종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곧 12가지의 다양한 주제 —〈진리에 이르는 길〉,〈동양의 이성을 찾아서〉,〈인간의 본성은 악한가〉,〈현대사회와 전통 가족윤리〉,〈바람직한 사회의 기초〉,〈역사를 보는 눈〉,〈해탈과 세계〉,〈주역과 현대인〉,〈동양적 환경철학의 모색〉,〈그려지지 않은 그림〉,〈페미니즘과 유교〉,〈미래사회와 동양철학〉—를 다룸으로써 동양철학이 관심을 둘 수 있는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책 제목의 '우리들의'란 말에도 배어 있듯이 뭔가 친절한, 좀더 가까이 다가 가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알기 쉽게 쓰고자 한 것도 그렇지만, 각 주제 뒤에 '생각해볼 문제'와 '권하는 책'을 둔 세심한 배려가 모두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책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비교적 가까이 다가가는 했지만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는 못했으며, 서둘러 빠져버려나와 동양철학을 말해버리곤 한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현대의 병증과 병력을 캐내기 위해서는 좀더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동양철학에 대한 성급하고 과도한 해설은 과감하게 줄이고 현대의 문제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런 점에서 〈현대사회와 전통 가족윤리〉란 글이 비교적 균형잡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이 책은 '보는 것'에만 머무르고 있다. 밝은 동양철학에다 닫고 눈을 현대를 보는 꼴이다. 보는 행위에도 실천적 지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론의 영역에서든 실천의 영역에서든 현대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환경의 문제를 논의할 때도 자연관과 같은 '관(觀)'의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그 '관'을 바탕으로 한 형이상학과 인식, 윤리 등의 문제를 입론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동양, 서양식의 구분에 의한 분석은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자칫하면 '거대 논의'에 빠져 실제적인 내용을 놓칠 우려도 있다.

이와 연관해서 욕심을 부려본다면 이제 동양철학 연구자들은 현대의 개별 문제에만 바빠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대의 문제들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총체적인 새로운 철학체계를 만드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이 책의 저자들에게만 요구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는 동양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필자를 포함해서) 모두의 숙제이다.

홍원식

계명대 철학과 교수. 저서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강좌 한국철학)(공저) 외.

자본주의의 불안 반영한 상업출판물 대안 제시보다는 변화 자체에 주목

자본주의의 미래

레스터 C. 써로우 지음/유재훈 옮김
고려원/A5신/514면/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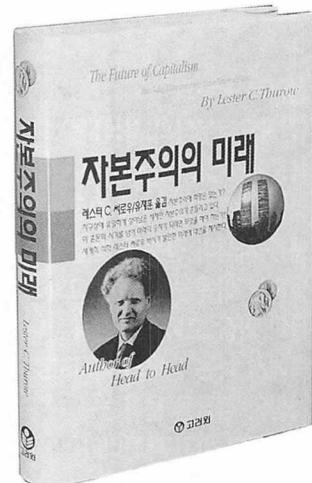
사회주의의 붕괴로 자본주의는 가장 강력했던 경쟁자를 잃었다. 그러나 경쟁자가 사라지는 것이 곧바로 축복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쟁이야말로 결함을 은폐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덕적 방패막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제 불안하다. 더 이상 자신의 결함을 덮어둘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레스터 써로우 교수의 《자본주의의 미래》는 바로 이런 불안감을 겨냥한 상업적 출판물이다.

그가 겨냥하는 불안감은 다섯가지의 경제지판을 통해서 제시된다. 공산주의의 종말, 전자극소혁명에 의한 새로운 기술, 노령화라는 새로운 인구구성, 경쟁자 없이 전지구화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다극화된 헤게모니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들 경제 지판이 동요되기 시작함으로써 자본주의는 '평형시대'를 마감하고 불안상태로 돌입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불안한 자본주의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자신의 상업적 가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상업적 저작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그의 이야기도 정작 본론보다는 전제의 설명에 논의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불안상태를 대변하는 많은 지표들이 제시되는데 불평등의 확대와 실질임금의 저하, 그리고 기업의 다운사이징과 대량의 실업, 롬펜 프롤레타리아의 생산, 가계의 피폐화 등이 다. 그러나 이 모든 지표들은 대안의 고민을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그것들은 단지 불안의 감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것 외로만 보인다.

그의 대안이 다소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들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으로,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감정적으로 인식"하기만 하면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단언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대안보다는 변화 자체에 대한 인식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순쉬운 정책은 어떤 내용들로 이뤄져 있는가?

핵심은 공적 기능의 강화로 집약되며 주체는 정부이다.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공적 인프라의 확대, 사회통합기능의 복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적 자본가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이들 정책이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에게는 준비된 답이 있다. 변화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인식이 경제적인 이해에 우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답변은 다소 무성의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적극적인 대안을 찾는 것은 우리들의 몫으로 남는다. 그가 제시한 불안의 현상들은 모두 경쟁자의 소멸로 인한 것이다. 외부의 경쟁자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협해야 했던 사회주의의 해체가 그것이다. 노령화, 세계화, 다극화, 그리고 고실업, 실질임금의 저하 등은 모두 그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불안의 대안은 자본주의의 방종을 막아줄 새로운 경쟁자를 찾는 일이다.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외부의 경쟁자가 사라진 지금, 새로운 경쟁자는 아마도 자본주의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쟁자를 어디에서 찾아낼 것인가? 이 책에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독후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래도 해답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겠다.

강신준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역서 《자본》 저서 《자본의 이해》.

다양한 주제 고찰한 출판학개론 공동작업의 중요성 일깨워

현대출판의 이해

임동욱 외 지음
나남출판/A5신/542면/14,000원

한국에서 출판이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30여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동안 출판학은 여러 부문에서 꾸준히 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다.

1963년에 나온 안춘근의 《출판개론》을 시초로 그간 여러 개론서가 출간되었으며, 특히 1995년 《출판학원론》(범우사 기획실 엮음)이 12인의 공동작업으로 출간됨으로써 출판학의 공동연구 분위기를 진작시켰다. 이의 연속선상에서 《현대출판의 이해》가 또다시 11인의 공동작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출판학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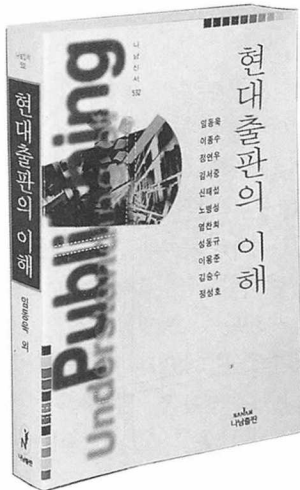
각 장마다 독립된 논문의 틀을 갖춘 이 책의 제1장은 출판연구의 대상과 방법, 출판의 특성과 기능을 살핀다. 제2장은 출판의 역사를 사상사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유럽과 한국에서의 인쇄술의 발달과정을 살핀 다음, 근대사회의 출현과 출판문화의 정착과정을 밝힌다.

제3장은 자본주의하에서 출판의 성격을 밝힌다. 제4장은 출판산업의 일반적 특성을 고찰하고 출판상품의 성격에 따라 출판시장을 분류한 다음, 한국 출판산업의 구조와 현황을 분석한다. 나아가 미래의 출판산업은 다른 정보산업 분야와 통합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5·6장은 출판관계법을 소개하고 출판정책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7장은 출판경영을 생산요소관리·수요관리·가격관리·유통관리의 네가지로 나눠 분석한다.

제8장은 출판비평의 방법과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한다. 제9장은 서구 선진출판국가 위주의 국제 출판구조를 밝히고 개발도상국 출판의 현황을 살핀다. 이를 위해 현재 세계 출판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5대 출판국가의 출판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종속적 출판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제10장은 전자출판의 발전과정과 유형을 소개하고 전자출판과 출판의 미래를 살핀다. 끝으로 11·12장은 잡지와 사보의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출판의 이론과 현상을 거시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보다 넓은 이론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현대출판의 이해》는 최근에 나온 《출판학원론》과 함께 공동작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개론서라 할 수 있다. 《출판학원론》은 원론을 내놓는다는 편집원칙에 따라 비교적 일관된 체계화를 시도한 반면, 어렵게 읽히는 부분이 많다.

이에 비해 《현대출판의 이해》는 가급적 쉽게 쓰려 한 시도는 느껴지지만, 주제 선정이나 목차 배열에서 산만한 감이 있다. 더욱이 편집레이아웃의 이해를 돕는다는 이유로 한권의 책을 부분부분 갈라서 글자 크기, 종이의 종류 등을 달리하여 서적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어 산만한 느낌이 더 깊어진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출판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최근까지의 연구성과를 수렴하고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고찰한 12편의 논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출판학계의 소중한 수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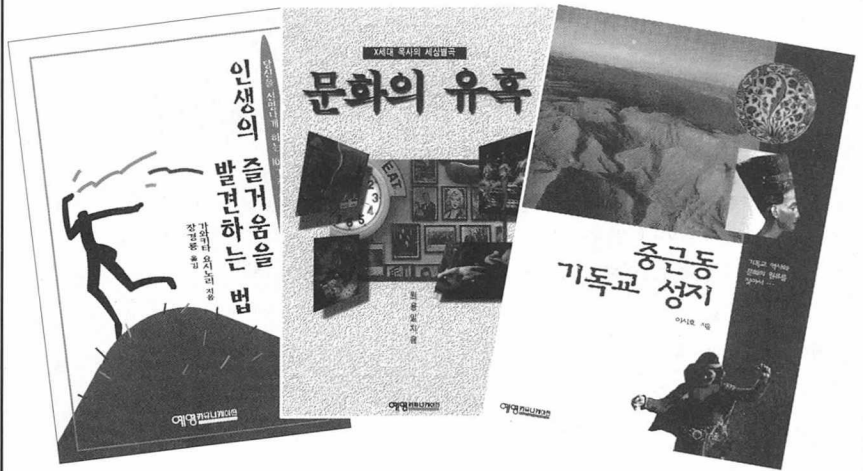
부길만

동원공업전문대 문예편집과 교수.

씹을수록 맛이 난다?

요즘처럼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더 혼미한 양상으로 빠져들고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망연해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입맛인들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먹는 것마저 포기하면 큰 일 치르겠지요? 음식에 맛 없는 것과 맛 있는 것, 그리고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선택해서 먹어야만 그나마 입맛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책도 음식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느냐에 따라 마음의 양식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영 커뮤니케이션**은 씹을수록 맛이 나는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독서의 참 맛을 즐겨보십시오.

주 목 받는 책들



당신을 신명나게 하는 100가지 생각 뒤집기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법

가와키타 요시노리 지음 · 장경룡 옮김/4·6판(양장)/328면/7,500원

인생의 행간을 읽으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은 즐거워진다. 누구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누리는 비결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잠들고 있는 신명나는 인생의 비법들을 밝혀줄 것이다. 출판 프로듀서이자 생활경제 칼럼리스트인 일본인 저자의 지혜가 담겨있다.

문화의 유혹

원용일 지음/신국판/236면/6,000원

X세대 목사의 세상별곡. 기독교인이 성경에 근거해 가져야 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사 전반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안목을 주는 '안경'이어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부각된 문화 속에 있는 동성애와 페미니즘 등의 사회여론을 크리스천 마인드로 지적하고 기독교인들의 자화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담겨있다.

기독교 역사와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중근동 기독교 성지

이시호 지음/ 크라운판/684면/16,000원

현 레바논 대사가 쓴 국내 최초의 중근동 역사문화여행서. 이 책은 중근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6년에 걸쳐 터키,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등 6개 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고 현지의 자료와 다양한 학술적 문헌을 바탕으로 쓴 역작이다.

과학문명의 측면에서 본 중국사 치밀한 고증에 적극적 해석태도

중국의 과학문명

야부우치 기요시 지음 · 전상운 옮김
민음사/A5신/226면/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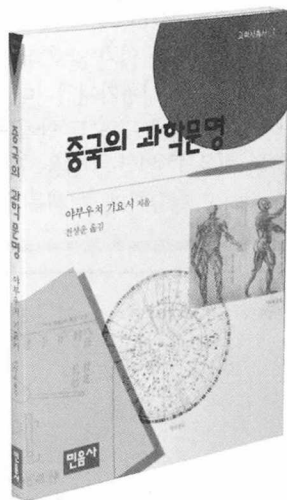
1970년에 이와나미 신서(新書)로 나온 《중국의 과학문명》은 1974년에 전과과학사의 현대과학신서로 소개된 바 있거니와, 이번엔 역자 전상운 교수가 새로 손질해 민음사의 과학사총서로 다시 펴냈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은 책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서점에서 사라져버리고 미는 출판현실에 비추어 매우 반가운 일이다.

고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는 1930년대 이래 수십년간 중국과학사 연구의 세계적 중심지였다. 60-70년대에 고토학과를 이끈 야부우치는 수십년간 중국의 천문역법(天文曆法)만을 연구했다. 지금까지 90세의 고령으로 학회장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60년대 후반 환갑을 넘기며 일생의 연구업적을 한 차례 정리할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천문역법의 연구를 종합한 《중국의 천문역법》(1968)을 내고 뒤이어 《중국의 과학문명》을 집필했다.

야부우치는 치밀한 고증에 주력하고 해석에 신중한 기왕의 고토학과 학풍을 넘어서는 적극적 해석의 자세를 《중국의 천문역법》에서 보여주었다. 《중국의 과학문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과학문명 전반의 전개를 개관한, '과학문명의 측면에서 본 중국사'라 할 책이다. 이것은 중국사를 탐구하는 분야사(分野史)의 하나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이다.

어떤 분야사이나 그 분야의 내용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는 내적 측면과 그 분야가 전체 역사전개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는 외적 측면의 양면성이 있다. 예컨대 종교사나 미술사는 종교나 미술의 제 현상이 펼쳐진 흐름을 살피는 한편 종교나 미술을 통해 전체 역사를 바라보는 나름의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국과학사 연구가 크게 확장된 것은 분야사의 외적 측면이 작용한 것이다. 과학기술이 사람들의 의식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과학사의 관점이 역사학계의 주목을 받아온 것은 오래된 일이다. 그러다가 유럽 과학문명의 발전방향에 회의를 느끼는 시각이 늘어남에 따라 인류 과학문명의 흐름을 더 넓게 바라보려는



노력에서 중국과학사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야부우치의 《중국의 과학문명》은 연전 타계한 니덤 교수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제1권, 제2권과 함께 이 변화를 이끌었다. 60년대에 이뤄진 두 사람의 개관에 보완할 만한 점이 많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보완을 필요로 할망정 그리 수정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탄탄한 틀을 짜 놓았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며 두 거장(巨匠)의 솜씨에 경의를 느낀다.

중국사에 관심을 가진 일반독자에게도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책이다. 전통적 왕조 중심의 사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이만큼 중국사의 흐름 전체를 한 눈에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는 책도 찾아보기 어렵다.

김기협

역사학자.

현대소설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 소설의 위기설에 대한 반론 제시

현대소설의 유형

김경수 지음
술출판사/A5신/258면/7500원

《현대소설의 유형》의 저자인 김경수는 이미 소설비평 분야에서 남다른 활약을 하고 있는 비평가이다. 대부분의 그의 비평들은 개별적인 문학작품의 내적인 구성원리를 정치하게 분석하되 분석의 결과를 외적인 문맥과 관련시키는 균형감각을 지니고 있다. 즉 해석과 비판이 구체적인 내적 연관을 좇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보기 드문 미덕이다. 그는 쉽게 연역적 비평의 권력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의 두번째 평론집 《현대소설의 유형》에서 다시 그의 비평이 지닌 장점들과 만나게 된다.

우선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가 소설의 장르적 속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배회를 거듭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그가 채트만과 우스펜스키 등 주요 소설이론서의 역자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서사학에 관한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지녔다. 이 책은 그의 서사학이 구체적인 작품 분석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미덕은 개별적인 작품 분석 행위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그가 작품을 이론적 검증 위해 결코 희생시키지 않는 태도와 관련된다. 그에게 방법과 이론은 개별 작품이 지닌 서술의 구체를 해명하는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작품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두번째 미덕은 그가 미시적 분석과 맥락을 하나의 장 속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서술의 전략들은 곧 작가의 세계관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규범사학에서처럼 작가의 세계관을 연역적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소설에서 의사소통행위의 과정인 서술의 개별적 특성이 작가적 비전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작가의 비전과 서술전략은 상응한다.

세번째 미덕은 그가 나름의 유형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시학적인 장르론에서 유형은 체계와 다르다. 그것은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descriptive) 것이다. 이것은 변화와 혼합에 관한 다양성을 지향하며 정의와 분류보다 식별과 소통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들-여성성장소설, 자성소설, 엽편소설, 제의적 소설, 구연적 소설,



메타픽션적 영화소설 등-은 모두 가능성 또는 소설의 자기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자성소설과 엽편소설과 구연적 소설이 기존의 소설유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데 일조할 것임을 지적한다. 유형의 제시가 가능성을 찾는 일임은 기왕에 알려진 유형인 성장소설, 역사소설, 그리고 액자소설 등에 있어서 서술론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변형들을 찾아내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의 입장에서 소설은 늘 미래적인 장르이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론적 가능성은 그래서 소설의 위기설에 반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김경수의 《현대소설의 유형》은 다양한 현대소설의 유형들을 분석함으로써 서술행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진단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작가와 독자들이 함께 소설이라는 의사소통의 장을 확충하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임을 충고한다. 그의 충고는 자상하고 구체적이다. 그가 쿨리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듯이, 모든 문학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세련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자기확충이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수렴된다면, 그가 제시하고 있는 소설유형학이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구모룡

문학평론가 ·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저서 《구체적 삶과 형성기의 문학》 《신생의 문학》 외.